

Winter 2017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국립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Vol.72



Headline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국제교육 프로그램
Issue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
Spotlight	미술학과 85학번 김창기 동문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2-835-9240 Web. www.inu.ac.kr

아름다운 당신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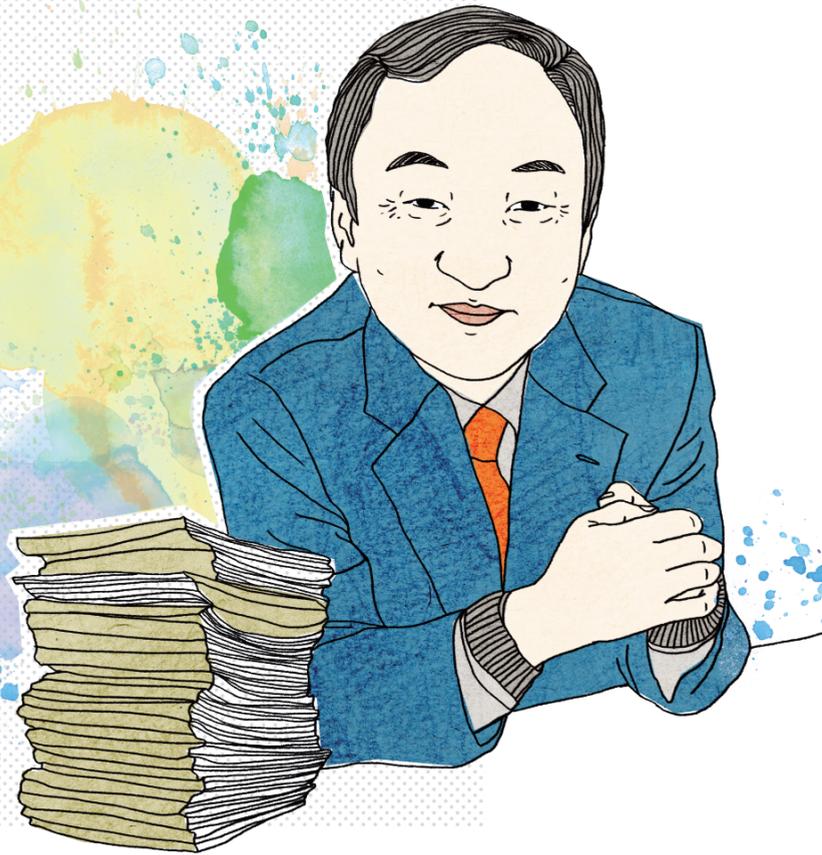
작은 움직임이 모여
세상을 환히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닮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대

+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양운근 남께 (INU)의 진
심을 담은 캐리커처 액자를 선
물로 드립니다.



무통장 후원하기 :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INU Winter 2017
Vol.72



contents

02 아름다운 얼굴, 그대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

I&Utopia

- 04 신년사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조동성
- 06 **Headline** 세계에서 보고 온 미래도시, 한국의 미래를 견인하다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국제교육 프로그램
- 10 **Issue** 그린리더 양성, 그린캠퍼스에서 시작된다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
- 12 **Photo Them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천대학교 감사의 밤
2016 <감사의 밤> 행사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가는
인천대학교
2016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사>

I&University

- 16 **With U** 타인의 곁에서 나눔의 곁을 전하다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
- 18 **Letter** 내 청춘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
잊지 못할 6개월을 추억하며
디자인학부 진유리
- 20 **Real interview** 인천대인, 대한민국 인재로 우뚝 서다
컴퓨터공학부 김사무엘
- 22 **Spotlight** 절망의 삶에 새 숨을 불어넣다
미술학과 85학번 김창기 동문
- 24 **Zoom in**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세무회계학과
- 26 **Behind Story** 인천의 도시 경쟁력, 우리가 높인다!
'I-spot 100 인천도시디자인 워크숍' 수상자
- 28 **Guide** 원장님이 아버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집
인천대학교 생활원

I&Universe

- 30 **Focus** 산학협력의 First Mover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32 **Tip**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주자
셀트리온
- 34 **Thanks** 발전기금 현황
- 36 **Newsletter** INU 주요 뉴스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7년 겨울호 통권 제72호

발행일 2017년 2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032-835-92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www.inu.ac.kr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QR 코드를 클릭하시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이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수상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총장 취임 후 5개월간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하에서, 국립 인천대학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여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을 롤모델로 삼아 교육, 연구, 학생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도약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Branch-Campus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중국 연태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12개 단과대학의 각각 중국을 비롯한 세계 12개 지역 진출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창출하고 산학협력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매트릭스형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37개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업중심형, 국제협력형, 내부연계형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과 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기업 현장에서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송도지역 바이오클러스터를 바이오 의약품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 바이넥스, 베르나바이오텍과 같은 기업들과 업무협의를 시작하였고, 이 외에도 국내·외 유명 영리, 비영리 연구소와 사전 접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해 건강한 천원의 아침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약 520명이 이용하였고, 학생들에게 약 7천만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7년도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2018년도 국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의해 당장 2018년도부터 대학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대는 기초사업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발굴함과 동시에 현업부서 중심의 기획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연초에 2018년도 국비 신청(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190명의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와 연구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이미 교원 상시채용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 현재 모집된 14개의 연구 특성화 그룹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 그룹을 모집하고, 여기서 나온 연구가 쌓이고 쌓여서 다섯 개의 세계적으로 특화된 봉우리를 만들어, 국립 인천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한 발 앞서 노벨상까지 수상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또한
함께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역량과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체계화 하여 실행단계로 잘 정착시킬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 현재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까지도 이 교육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통해 학과간의 구조조정 없이 전통적인 학문구조의 강점을 살리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학생이 모두 Win-Win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립 인천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이제까지의 변화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또한 함께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여 눈앞에 닥친 변화의 파도를 여유 있게 타고 넘으며, 더 빠른 전진을 위한 힘찬 물살로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구성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국립 인천대학교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조 동 성

세계에서 보고 온 미래도시, 한국의 미래를 견인하다

교육부 특성화사업 선정, 年 18억 원 지원

우리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에 선정돼 지난 2014년부터 연간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은 인천시의 도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 도시과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도시사업단은 그동안 국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에 학생을 파견하고,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에 활동단을 파견하는 등 공적개발지원사업을 위해 총 6개국에 98 명의 인력을 나누었다.

특히 작년 2월에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해 지진으로 파괴된 시설 복구에 참여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3차년도 동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우리대학의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이 방학을 맞아 5개국으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실무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의 중점 사업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해외기업 장기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 및 CKCC 등 기관에 학생들을 파견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러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사업단은 이번 동계방학을 맞아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했다. 바로 중점사업인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60여 명의 학생들을 보내 약 일주일 간 해외 대학 및 기관, 건축물 건설 현장 등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단은 지난 12월 30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소개와 대표학생 선서,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교통·재난·수변관리 탐방으로 전문인력 양성
이번에 진행된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도쿄대학 학생 교류 심포지엄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일본 동경), Future City Program for the Environment and Energy(태국 방콕), 미래도시 공간정보관리 체험(미국 텍사스), 선진국형 미래도시연구(싱가포르), 유럽의 미래도시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프랑스 파리, 니스)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월 10일, 가장 먼저 국제교류를 떠난 싱가포르팀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미래도시연구소를 찾아 캠퍼스 및 실험실을 둘러보았고, 교통·도시 등 사회기반시설을 견학하며 한국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16일, 두 번째로 떠난 일본팀은 동경대 학생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실시해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 견학, 고베 지진 현장 방문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방안을 배우고 돌아왔다.

2월 2일 출발한 미국팀은 텍사스 주립대 방문을 통한 최신 시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학습 및 달라스 시의 재난관리, 도시설비관리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Texas A&M 대학의 리서치 센터 소속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 교육환경 체험 및 최근 방재 및 도시운영에 대한 연구결과물 공유를 통한 교육지변을 확대했다.

프랑스·체코팀은 사업단의 교육과정 중 특히 중요한 '도시수변공간조성 및 관리'에 대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도시수변경관계획, 건축디자인, 물 정보공학, 국가 도시관리 시스템 등이 실제 프랑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사례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학생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에 떠날 태국팀은 사업단 교육과정 중 '도시에너지 효율화'와 연계성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도시수자원 관리 등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여러 사례들을 경험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별 연구 동향 조사 및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미국 텍사스의 텍사스 A&M 대학에서 공간정보 프로그램 특강을 수강하는 등 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실제적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얻었다.



대한민국, 일본의 내진 설계 벤치마킹 필수



일본 팀 김한나



이번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일본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우리나라보다 발전되어있고 특히 도시의 활용성이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교통체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

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지진체험관이었다. 지진체험관에 있는 집은 지진이 일어나면 단 몇 초 만에 센서가 부착된 집을 들어 올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를 한 곳으로 동경 대지진 때 이 시설을 설치한 집만 지진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고 한다. 콘크리트기초를 한 후에 알루미늄판으로 공기가 잘 골고루 분배되도록 한 후 위에 집을 설계시공하는 방법으로, 이 집을 통해 공기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동경대학교 탐방을 하며 캠퍼스 내에 있는 박물관에서 박제의 표본들을 살펴보고 발굴하는 작업등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지진연구소에 방문하여 고무통을 통하여 건물 전체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물을 살펴보았다. 교통관제센터에서는 동경대 내에 있는 모든 신호체계를 다루는데, 정체가 많은 도로의 색깔을 달리하

여 바로 위층에 있는 라디오실에서 방송을 하여 원활한 교통을 만든다. 교통 정체시간에는 신호시간을 빨리빨리 바꾸어서 최대한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버스에 부착되어있는 송수신기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버스는 정시성이 안 좋기 때문에 나뭇길 지하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하철을 타러 굳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버스를 많이 애용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내진설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발전이 안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구에 점점 이상변화가 감지되는 요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들은 반드시 개발돼야 한다. 항상 먼저 대비하고 방안을 세우며 계획적인 일본의 시스템은 배울 점이 참 많다. 교통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없으며, 어디에서든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것이다. 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성숙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해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고의 폭 넓히고 고정관념 깰 수 있었던 기회



싱가포르 팀 김다빈



이번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 우리 싱가포르팀이 처음 간 곳은 NUS였는데 시험실 자체가 우리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 구조실험실, 토질실험실, 수리실험실,

교통실험실 등 모든 실험실이 분야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매우 깨끗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HDB였다. 우리나라의 행복주택처럼 이들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짠 값에 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그들은 주택 뿐 아니라 야외 운동기구, 잔디 운동장 등을 제공하고 이를 깨끗이 유지관리하기 위해 따로 고용인을 두었고, 동쪽 단지

와 서쪽 단지를 잇고 물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라와 비슷하게 waterway라는 인공 강을 만들었다. 이 강도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 강 주변은 필터역할을 하는 다양한 크기의 토립자로 구성하였고 옹벽을 단단히 대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기술면에서, 그리고 아이디어, 환경 등의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었다. 이외에도 첫날에 방문했던 URA가 기억에 남았다. 이곳에서는 여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6년도 베스트 기술 중에 우리나라 삼성의 세탁기 기술도 전시되어 있어서 매우 뿌듯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물을 수입하기에 절약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며 그 노력이 곳곳에 숨어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이며,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기에 싱가포르의 이 계획을 모티브로 도시계획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 침엽수같이 항상 푸르른 식물이 드물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뒤쳐진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알기위해 뛰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깊게 알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생각했던 대로 나의 원래 사고방식을 뒤돌아보게 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어준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I N T E R V I E W



국제교육 경험, 도전정신 키우는 계기가 되길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신은철 단장

단장님 소개와 이번 동계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장 신은철입니다. 이번 동계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태국 5개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면접을 통해 선발된 도시과학대 60명의 학생들과 각국의 선두적인 도시설계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녀오기 전과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학생들의 참가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입소문이 나다보니 경쟁률도 제법 높아졌습

니다. 예전에 면접을 보면 학생들이 수동적인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조사와 본인의 목표의식이 뚜렷해졌습니다. 현지에서의 강의 방식 또한 한국이랑 매우 다릅니다. 교수가 끌고 가는 한국 강의와는 달리 현지 강의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부쩍 성장한 학생들은 강의를 대하는 자세와 질문하는 수준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과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영어가 느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학생들의 자신감이 부쩍 늘어서 돌아옵니다. 또한 현지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내가 외국계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라던 학생들도 다녀온 후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취업한 학생들도, 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다소 아쉽습니다. 사교육에서도 얻을 게 많지만 학교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다면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 해 많은 것들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린리더 양성, 그린캠퍼스에서 시작된다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

edit 유서진

2012년 그린캠퍼스로 선정

그린캠퍼스는 정부의 친환경 성장정책을 대학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친환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캠퍼스 조성, 지역사회의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흔히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을 떠올리지만 사람과 수많은 건물들이 물려있는 대학도 못지않게 에너지 소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공모를 통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학들을 그린캠퍼스로 지정해왔다.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3년간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처음 10개 대학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40개로 늘어나며 점차 많은 대학이 환경문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린캠퍼스는 정부의 친환경 성장정책을 대학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친환경 인재양성을



우리대학은 지난 2010년부터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만 그루가 넘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환경에 관련된 교과목을 대거 편성하는 등 녹색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 또 태양열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전광판을 구축해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우리대학도 지난 2012년 일찍이 그린캠퍼스 사업에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환경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이용해 전기를 아끼고, 교내에 있는 조명을 대거 LED로 교체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또 건물 곳곳에 붙은 열차단필름 덕분에 일조시간대 실내 평균이 3°C 감소돼 연간 5,770만 원의 절약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캠퍼스 내 식재된 수목 4만 주 넘어

세계 명문대학들은 진작부터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친환경 설비와 문화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의 환경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미국이 그 예다.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전담기구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명문대처럼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에 친환경 캠퍼스를 꾸며나가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넓은 캠퍼스에 가득 찬 초록 물결. 캠퍼스 녹지율을 높여 공원처럼 조성한 것은 우리대학의 여러 자랑거리 중 하나다. 우리대학에 식재된 수목은 어느덧 4만 주를 훌쩍 넘어섰고, 캠퍼스 중앙공원을 가득 메운 화단에는 싱그러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꾸며진 우리대학 캠퍼스는 자연스럽게 CO₂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조경'과 '환경'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한번에 해결해냈다. 이처럼 캠퍼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우리대학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역민, 타 대학 학생들,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미디어에 캠퍼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명실상부 아름다운 캠퍼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린캠퍼스 최고점, 환경부장관상 수상

우리대학은 2015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그린캠퍼스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그린캠퍼스 지속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에도 우리대학의 그린캠퍼스 사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기업과의 에너지 컨설팅, ISO(국제환경규격) 인증도 진행한다. 또한 옥상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그린캠퍼스 선두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책으로만, 또 미디어로만 환경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의 꿈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이 종료되고 평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13호관 앞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2016 <감사의 밤> 행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천대학교 감사의 밤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열렸던 '국립 인천대학교 감사의 밤' 행사. 한 해 동안 우리대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대학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다짐을 각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의 인천대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동문, 유관기업, 대학 구성원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 덕분이었다. 인천대학교는 역동적인 변화와 성공적인 개혁을 주도하며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화답할 것이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주용

우리대학은 지난 11월 30일 23호관에서 '2016 국립 인천대학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동성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유정복 인천시장, 황인성 인천시의회 부의장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 유관 기업체, 시민, 동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격려해 준 분들을 초청하여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

한 구성원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인천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다짐을 각오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식전행사로 1시간 동안 조동성 총장과 대학 구성원, 시민들이 함께 캠퍼스 둘레길을 걸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둘레길 탐방은 1호관 대학 본부에서 시작해 학교를 돌아 출발지인 대학본부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둘레길 투어가 시작되기 전 조 총장은 함께 걷는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투어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즐거운 둘레길 탐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6시에 시작된 본 행사에서 조동성 총장은 대학 비전과 핵심사업, 2016년 대학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인천대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민들과 함께하며 더욱 훌륭한 명문 국립대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아니다. 조동성 총장이 오신 뒤로 인천지역과 대학발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 치의 빈틈없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대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민들과 함께하며 더욱 훌륭한 명문 국립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라고 축사를 했다. 황인성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조동성 총장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 시와 공생하며 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돕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동성 총장도 환영사를 통해 유정복 시장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자리를 빛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100위 대학의 목표는 지역과 함께가 아니면 달성도 못할뿐더러 의미도 없다. 인천시, 인천시민, 인천의 발

전과 함께 우리대학이 우뚝 서야 한다."라며 인천시와 인천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세계에 87개인데, 인천시가 88번째 300만 도시가 되었다. 오사카도 270만 밖에 안 된다. 세계 인구 88등인 인천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로서, 인천의 힘을 모으면 충분히 100위 대학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또 인천시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교수와 학생, 팸페라 공연팀의 무대로 진행되는 감사의 밤 공연과 이만수 전 SK 야구감독을 인천대학교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7시부터는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류

하고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또 만찬의 시간 후에 열린 기부 및 약정서 전달식에서는 한국넛센터 대표 와카이 슈지가 발전기금으로 1,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동북아물류대학원 총동문회,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인동회, 인천대학교 미화원 노조 등에서도 총 3억8,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이번 감사의 밤 행사는 소중한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더욱 활발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인천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다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2016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人>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가는 인천대학교

2012년부터 3회째 이어져 오는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人> 시상식이 지난해에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인천대인으로서의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 대학발전 후원자 양성 및 대학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린 행사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대학은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날의 영광 속으로 돌아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주용

우리대학은 지난해 12월 9일 '2016년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人'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열정으로 뛰어난 역할을 발휘해 대내외적으로 인천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학생과 지도교수를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인으로는 시흥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재래시장의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양지완 학생(행정학과 11학번),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무치> 팀(컴퓨터공학부 이상훈, 길태성, 임미영, 최수민), 제5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 수상자 박성호 학생(컴퓨터공학부 10학번), 초음파를 이용한 비접촉식 온도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BIXPO 2016'에서 수상한 박근 학생 등을 비롯하여 221명의 학생들이 그 영예의 주인공이다. 조동성 총장은 "국립 인천대학교는 한국에서 명문대학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도전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일류대학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역할이 있고, 교수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학생 여러분의 역할도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에 충실해주셔서 올해 학교를 이렇게 빛내 주셨고, 이를 계기로 또 많은 학우들이 자극을 받아 내년에도 학교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2016년도 우리대학을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 격려했다.



2016년도 우리대학을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타인의 곁에서 나눔의 곁을 전하다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



기부는 타인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보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눔의 실천이 모여 스스로에게 보람으로 쌓인다고 말하는 우리 대학 양운근 교수. 가장 가까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dit 표은지 photograph 이덕재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고파

양운근 교수는 1988년 3월, 만 27세의 젊은 나이로 인천대학교에 부임했다. 올해로 29년째 재직 중이니 그 당시의 나이보다 긴 기간을 우리 대학과 함께한 셈이다. 학교에 몸담은 기간만큼 애정이 남다른 그는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 말한다. 그러한 생각이 기부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양운근 교수의 원래 꿈은 장학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등록금이나 기숙사 비인데, 거기에 일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있어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한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생각만으로 그치던 때,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서울대학교는 기부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개인 장학기금으로 운용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2014년 말, 부친의 뜻을 기리며 ‘양재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양운근 교수의 고향인 경북 왜관에서 공부하고 상경해 서울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기숙사 실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동시에 ‘인천대학교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움은 또 다른 도움을 낳는다

남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지속하던 작년 12월, 양운근 교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다. 우리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에게 1년 치 기숙사 실비를 지원하는 일명 ‘양운근 장학기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희 전자공학과 연구실에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국까지 공부를 하러 온 그 학생을 위해 처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 지금의 장학기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학기금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해당 학생의 학교 입학금과 기숙사 등록금을 직접 내주며 가까이서 베풀을 실천해왔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다 학교 측 발전기금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나의 틀을 완성한 것이다. 그는 담당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본인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요. 남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돕는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려고 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남을 도우려는 본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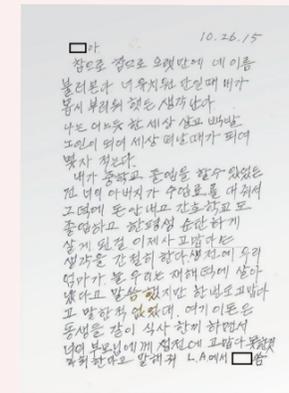
가까이 또 멀리 베푸는 마음

대학교 장학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7남매인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돕겠다고 이야기했다. 베푸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이야기와 시선이 고맙게 느껴지는 그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한의원을 하셨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약도 지어주고 베풀며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양운근 교수가 휴대폰을 한참이나 뒤적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바로 서툰 글씨로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누군가의 자필 편지였다. 양운근 교수의 아버님이 학비를 내주신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평생을 평탄하게 살았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미국 LA에서 직접 보내온 것이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아버지께 보고 배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양운근 교수, 먼 훗날 그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이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런 도움의 이어짐이 우리 대학을, 나아가 우리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 양교수의 아버지 양재해 씨가 과거 학비를 지원한 학생에게서 받은 감사편지.



University of Missouri

내 청춘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 잊지 못할 6개월을 추억하며

미국 미주리 주립대 교환학생 디자인학부 12학번 진유리

막연한 타지살이를 준비하며

미국 미주리 주립대를 떠나오기 전 우리를 담당했던 코디네이터와의 나눈 대화가 기억난다.

“이 6개월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묻는 내게 아만다는 “언젠가 문득 느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벌써 귀국한지 1년이 지났다. 졸업을 앞둔 지금 돌이켜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내 대학생 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문득 아만다의 말이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

처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된 것은 답답함 때문이었다. 4년 동안 같은 학교의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고작 제주도 수학여행이 여행 경험의 전부였던 내게 해외에서 산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학과행사

에서 만난 선배의 조언으로 국제학생회에 지원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 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어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환경과 유창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영어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1년의 활동 동안 사귀 외국 친구들을 통해 해외 생활이 더는 막연하지 않게 됐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니 하루빨리 해외에 나가보고 싶었다. 그렇게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에 지원하였고, 6개월의 준비과정 끝에 드디어 교환학생으로서 가슴 벅찬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주리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동양인들에게 익숙지 않은 주이다. 그럼에도 뉴욕, LA가 아닌 미주리로 유학길을 떠난 이유는 첫째로 동양인들이 많이 없고 아직 발



전되지 않아 미국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고, 둘째 여학연수와 리더십 프로그램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Ambassador-buddy 프로그램, Field trip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꾸준한 영어 사용으로 어학능력 키우기

미주리 주립대의 캠퍼스는 6개월이 다 끝날 때까지도 길을 잃을 정도로 넓었고, 각각의 건물들이 그 역사적 위상에 맞게 웅장했다.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동양인도 소수였고 무엇보다 맘에 드는 것은 체육관, 식당과 같은 학생 편의시설이었다. 평일에는 8시에 일어나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식사 후 오후 수업을 했으며 4시에 일과를 마쳤다. 수업은 토론, 리더십 활동,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았고 꾸준히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어학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대학 교양과목에서 배운 회화들이 제법 도움이 되었다. 배울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하던 영어를 대학까지 와서 또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현지에서 적재적소에 쓸 일이 생기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하는 후회까지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체육관 혹은 도서관, 아시아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토론수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트레이닝

Leadership through English Advancement and Development. 미주리주립대의 lead프로그램은 여타의 여학연수 프로그램과는 달리 리더십 향상이라는 목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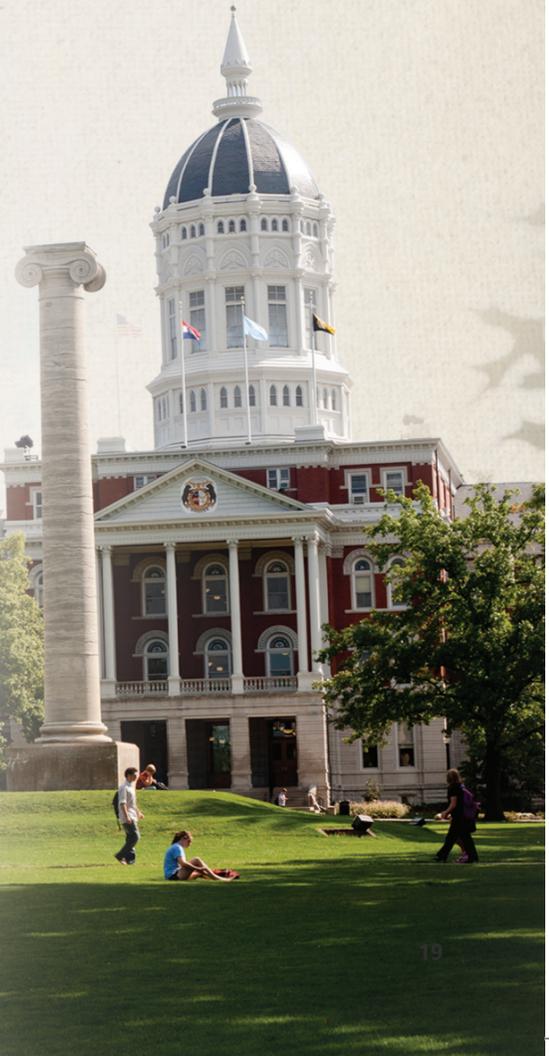
가지고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 작문은 내 의견을 명확히 피력하기 위해, 영어 스피킹은 리더로서 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이끌기 위해 이렇게 책상머리 공부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실용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강아지가 좋은지, 고양이가 좋은지’와 같은 정말 단순한 의견까지도 내 주장과 근거를 들어야했던 토론수업을 통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며 다듬어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어 → 영어 번역과정 없이 빠르게 영어로 의견을 어필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되었다. 시간이 타이트하진 않았지만 머리의 새로운 근육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수업이 다 끝난 후에는 항상 진이 빠졌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추억과 경험

다른 학교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학의 학생들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소통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14명의 교환학생(여러 대학으로부터)과 14명의 미국인 Ambassador들이 있어 비교적 쉽게 미국 대학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유학 당시에는 영어권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경험들이 힘들었던 대학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바쁘다는 핑

계로 미웠을 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다.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대학이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넓은 땅,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배울 점은 충분히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대학의 학생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고 교수진 역시 우수하다는 점을 알았다. 답답한 마음에 지원한 교환학생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 추억, 그리고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6개월이었다.





인천대인, 대한민국 인재로 우뚝 서다

김사무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2016년을 달려온 온 청년이 있다.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과분한 어린 시절을 딛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개척한 우리대학 컴퓨터공학부 김사무엘(4학년) 학생.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마땅히 보상을 준다는 믿음으로 부단히 노력한 길, 세상은 그에게 '2016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화답했다.

edit 신경화 photograph 이주용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이 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200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학생 부문에 최종 선정된 김사무엘 학생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기쁨을 넘어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따뜻한 조연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들 얼굴도 떠오르고, 무엇보다 3형제 키우느라 고생한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가 9살이던 때부터 10년을 따라다닌 꼬리표다. 어려운 형편 탓을 하며 벗어나기도 여러 번. 사춘기는 그야말로 방향의 연속이었다. 그런 그를 잡아준 건 역시 가족, 그리고 쌀과 생

필품 등을 나누며 내밀어준 이웃들의 손길이었다. 피자 배달, 바지 제조공장, 보험설계사, 부동산 분양 일까지 손에서 아르바이트를 놓지 않았던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다.

“우연히 야학교사 모집 안내문을 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던 제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로 돌봐준 사람들이 떠올랐죠. 이제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인천의 청소년야간학교에서 선생님이 일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동시에 그의 꿈도 더 큰 세상을 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창업 동아리와 교육부 주최 대학창업유망팀 300에서 활동하며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갈고 닦았다. 특히출원 3건의 성과와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또 세계발명창의대회에서 은상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류 디자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데 성공했다.

“제 노력을 검증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인

재상'에 도전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며 '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서 탁 막히더라고요.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론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면접관의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수상자가 된 김사무엘 학생, 이 상은 그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자 힘찬 응원이었다.

큰 꿈을 향한 질주, 후배들과 함께 하고파

사실 김사무엘 학생에 앞서 인천대학교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학생이 있다. 바로 김사무엘 학생의 쌍둥이 동생 김요한 학생이다. 두 형제가 도전하며 꿈의 지평을 넓혔듯, 김사무엘 학생은 우리대학에서 꾸준히 인재상을 배출하며 그 명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웃음).” 창업과 봉사, 근로 활동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그

또한 걱정 반 자신감 반이다. “학점도 부족하고 아직 학생 신분을 벗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인천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라는 책임감을 갖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앞두고 스타트라인에 선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까.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빛나는 성장을 보여준 그였기에 더 큰 사람, 더 큰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절망의 삶에 새 숨을 불어넣다

미술학과 85학번 김창기 동문

벌떡 일어나는 듯한 몸짓, 곳곳이 처든 얼굴, 아무지게 다문 입술. 비록 온기 하나 없는 동상이지만 그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진다. 오랜 시간 아파했을 소녀들의 혼,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두 담겨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미술학과 85학번 동문, 김창기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덕재

사회의 불만, 예술로 표출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잠시 화가가 되고 싶던 적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촉감놀이가 발전돼 조각가를 꿈꾸기에 이르렀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인천대였다. 사실 당시엔 대학 선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전혀 후회는 없다. 삼수 끝에 입학한 인천대. 캠퍼스의 낭만과 청춘을 누릴 새도 없이 끌려가다시피 입대를 했다. 전투경찰로 차출돼 혼란의 시간을 겪고 돌아온 학교는 또 다른 혼란의 연속이었다.

“데모에 참가하는 학우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나의 동료였던 전투경찰들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자유에 대한 갈증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방식으로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알몸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잘 상징할 수 있는 ‘알몸’으로써 풀어내고 반항한 것이다.

그는 회화를 전공했지만 평면이 아닌 입체 작업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도교수조차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학길이었다. 졸업 후 바로 이탈리아로 건너가 7~8년의 아카데미 생활을 거쳐 조각에 대한 어렵듯한 꿈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조각가로 활동을 했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작업보다는 추상적인 작업을 추구하던 그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지난해 7월, 일본 위안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에 참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부탁이었다. 김창기 작가는 흔쾌히 수락했고 이후 몇몇 작가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 심의를 거친 끝에 제작자로 당선될 수 있었다.



작업의 터닝포인트가 된 소녀상

모티브가 된 것은 영화 <귀향>이었다.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원귀가 됐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 분들의 소녀 시절을 상상 속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 힘썼다. 소녀상의 디자인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김 작가가 생각하는 소녀상, 그리고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소녀상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만 해도 두어 달이 걸렸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이미지를 모조리 수집하고 난징대학살이며 홀로코스트 등 비극적인 전쟁에 대해 공부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나이는 고작 14살에서 19살이었어요. 제 딸이 올해 13살인데 딸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그들만큼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소녀들의 부모님이 떠올라 역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소녀상의 모습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그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소녀상을 생각했지만 그 시기 아베 총리의 ‘더 이상의 사과를 없다.’라는 말에 생각을 바꿨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 소녀의 모습, 꽉 쥔 주먹, 아무지게 다문 입술, 하지만 부드러운 표정을 통해 일본에 대한 반발심과 당당함을 모두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내내 정성으로 빚어진 소녀상은 마침내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소녀상의 건립을 기리고 또 깊은 의미를 함께 헤아려주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모자도 씌워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목도리도 돌려주며 차가운 동상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곳에서 소녀상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술과 생계가 병행되는 교육을 꿈꾸며

그는 변화한 인천대를 바라보면 참 자랑스럽다. 현재도 우리대학에 강의를 나오고 있지만 학생들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똑똑해진 것에 매번 놀란다고. 순수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코 후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다만 순수미술 활동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예술작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회구조적으로 그러기가 힘들어졌다. 쉽게 말해 돈이 없으면 예술작업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부수적인 일을 더 하더라도 후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바꾸지 않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극단적인 예로 미술교육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을 병행한다면 후에 예술공방을 열어 카페도 함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예를 든 거지만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각가의 삶을 살아갈 계획이다. 다만 작업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듯하다. 이전의 작업물이 감성적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문제들도 적극 반영한다. 언제나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응원하는 그가 있기에 우리대학 후배들, 소녀상처럼 당차고 곳곳하게 꿈을 꾸어도 될듯하다.

순수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코 후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학문

세무회계학과는 명칭 그대로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주로 기업의 재무정보를 다루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재무정보다. 회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 비용과 그에 따른 이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 및 세무관리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세무회계학은 경영학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분리되어 전문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대에 비해 4년제 대학교에는 단독적인 세무회계학과가 많지 않다. 우리대학 세무회계학과도 2010년 신설되었다. 30~35명의 학생들로 시작하여 현재는 29명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과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졸업생들은 매해 다양한 방면에서 제 역할을 해낸다. 2016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1명, 국내 세무사 4명, 세무공무원 5명 등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갔다.



[2016년 졸업생들의 다양한 역할]

회계학 파트 중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정유석 교수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웃음)”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소수정원의 학과라서 학생들 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장점도 있다. 선후배나 동기, 졸업생들까지 모두 돈독한 사이가 유지된다. 취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준다. 수시로 학생과 교수 간 1대1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수들은 지속적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수님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알려주려고 하죠.”

세무회계학과

기업과 각종 기관, 부서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 특화된 학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보다 큰 역할을 해내는 우리대학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dit 표은지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다

우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진은 처음 교과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진출 분야에 맞춰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세무회계학과와 진로 방향성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다. 법인에 들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도 가능하다. 또 하나는 세무공무원이다.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체나 금융 분야 세무회계 파트에서 역할을 해내는 친구들도 있다. 관련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세무사 자격증이나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업에서 우대를 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공부하는 편이다. 하지만 당장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추후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수 과목들만 운영한다. 전공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필요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 외에는 경영 대학 차원에서 스터디그룹 8개 정도를 운영한다. 그 중 세무회계학과 스터디그룹 2개가 있다. 연 2회,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도 교수님들이 상담을 통해 진로 지도를 해준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꼼꼼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세무회계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타고난 꼼꼼함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실함과 계획적인 특성을 가지면 좋다고 전한다. 사실 교수진이 짧은 시간 내에 학생의 기본 역량을 알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면접에서 진솔하게 자기 소신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학습적 역량보다는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학생이 더 눈에 띄기 마련이다. 따라서 암기식의 면접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모든 과목에 계산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숫자와 친숙해져야 한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깊게 탐구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대학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준다.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진취적인 발걸음을 나서는 그들 앞에 더 빛날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진로 방향성]



인천의 도시 경쟁력, 우리가 높인다!

'I-spot 100 인천도시디자인 워크숍' 수상자
(디자인학부 학생 / 지도교수 김성희)

우리대학 인재들의 창의적 역량이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총 54개 팀의 작품 전시와 21개 팀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I-spot 100 인천도시디자인 워크숍'에서 장려상, 특별상, 대상을 휩쓴 것. 대학생들이 직접 인천의 대표 장소를 발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워크숍을 주름잡은 영광의 얼굴들을 만났다.

edit 신경화 photograph 최준근

대상 : 강예은, 김희진, 연수빈
 우수상 : 송중섭, 신민재, 이동혁, 김수정
 장려상 : 김예사랑, 이상균, 김서경, 김규태, 박정민, 이도현, 김대은, 김수정, 우예솔, 박현아, 방상배, 오승현
 특별상 : 주이삭, 이호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승부

지난해, 인천시는 관내 대학의 학사과정과 공공디자인 행정을 연계한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대학도 디자인학부 김성희 교수가 '지속가능 디자인'을 2학기 커리큘럼으로 개설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6년 11월 5일, 인천시는 'I-spot 100 인천도시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다. 관내 5개 대학 8개 학과의 지도교수와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출품에 앞서, 김성희 교수는 학생들에게 '장소 선택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수확”

“공모전의 핵심이 Incheon-spot인만큼 인천의 좋은 장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과 어울리는 창의적인 스토리를 덧붙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방상배 학생은 중구에 방치되어 있던 정미소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지역 최초의 근대식 방앗간인 ‘담손이 방앗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문화 예술적인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는 아트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공모롭게도 다른 대학 팀과 장소가 겹쳤으나, 유일하게 장려상을 받았다.
 주이삭, 이호영 학생은 ‘노인을 위한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재개발지역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달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무엇일까 고민했지요.” 이들은 어울림과 소통의 장소로서 쉼터와 마주 보는 의자, 대화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웃음 벨’을 도출했고 특별상을 받았다.
 연수빈, 김희진 학생은 20여 개의 목공소와 장인들이 모여 사는 목공예마을을 공략했다. “목공예와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 이렇게 연상되면서 스토리를 접목하면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간판도 피노키오 상징인 코로 통일감을 주면서, 상점마다 별도의 디자인을 가미해 아이덴티티를 주었지요.” 그 결과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의 송이동 목공예’를 타이틀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자료조사는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매주 한 번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았지요.”
 김희진학생도 이번 공모전을 전후로 공공디자인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목공예마을은 예전에도 나무 간판화가 한 번 시행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아마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거예요. 창호면 창호를 넣고 주방가구면 주방 디자인을 넣는 등의 각 목공소의 특징이나 요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희가 출품한 디자인은 현장 상인들의 생생한 요구들을 담은 것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은 전문가들의 손을 거친 후, ‘인천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수록하고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김성희 교수는 “좋은 디자인은 인간, 환경,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학생들이 조금은 깨닫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다들 정말 잘해줘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한 달 반 동안의 준비기간, 많은 밤을 지새우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감사했던 시간, 교수님의 예리한 지도가 섬세하기도 했을 그 시간. 이들은 더 단단해진 내공을 자랑하며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별상
주이삭(2학년)
이호영(3학년)

대상
연수빈(3학년)
김희진(3학년)

장려상
방상배(3학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성장의 원동력

시작은 해매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공모전을 앞둔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해야 할지, 어떤 디자인을 입혀야 하는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호영(3학년) 학생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원장님이 아버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집

인천대학교 생활원

하루 절반 가까이를 생활하는 곳. 집은 아니지만 제2의 집과 같은 보급자리. 바로 생활원이다. 소통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 공간이자 안식처. 그러나 그 곳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생활원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INU 소식지가 준비했다. 직접 생활원을 찾아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전하는 리얼 후기. 인천대 생활원의 탐방을 시작한다.

2019년 총 3,150명 수용

우리대학 기숙사인 인천대 생활원은 현재 951명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다. 매년 달라지지만 여학생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원생을 선발한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진 않지만 사실 우리대학 생활원의 수용률은 7.4%로 아주 낮은 수치다. 전국 국공립 대학의 평균 수용률이 14~20%인 것을 생각하면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BTI(임대형 민자사업)로 제2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다. 현재 22% 가량 진행됐으며, 내년 2월 완공돼 신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용률이 두 배에 가까운 14%까지 올라간다. 또한 지난 2015년 제2기숙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선정된 제3기숙사는 2019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약 3년 후에는 총 수용인원이 3,150명까지 늘어 지금보다 3.5배의 재학생들이 생활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용률도 23%로 국공립 평균보다 높아져 기대가 크다. 제2,3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캠퍼스 주변의 타 대학과 기숙사 사용에 대한 협약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입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 성적 고려해 원생 우선 선발

현재 생활원의 경쟁률은 2.6:1 정도다. 1학기의 경우 신입생들의 기숙사 입사의 지원율이 높아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라 4:1을 기록할 때도 있다. 신청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생 선발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입사 방법은 매 학기 단위 일반선발, 별도선발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선발에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체육특기자, 외국인 교환학생 등이 대상이 된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나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입학 조건 중 '기숙사 무료 입사'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선발은 위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을 말한다. 일반선발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우선선발이 되며, 나머지 학생들은 거리, 성적, 학년 비율에 맞춰 선발하게 된다. 1학년 50%, 2학년 20%, 3학년 20%, 4학년 10%의 비율로 집까지의 거리와 성적을 고려해 매우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



우수 평가 휩쓰는 최고의 부대시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사하게 된 생활원. 처음 생활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기관평가를 할 때마다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깔끔한 것은 물론이며 식당, 세탁실, 체력단련실, 주방 및 탕비실, 독서실, 그리고 DVD실, 당구장까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아침에 제공되는 천연밥상도 우리 생활원의 자랑이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요가강사를 초빙해 매주 요가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캘리그라피 등의 수업을 열어 학생들이 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생들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다. 시험기간에는 간식이벤트를 진행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외부 학생들을 방으로 초청하는 오픈하우스도 있다. 명절이면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행사도 인기가 많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찾아간 날에도 직접 만든 향아리에 작대기를 던지는 투호놀이가 로비에서 한창이었다. 다채로운 부대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원생 관리도 엄격하다. 통금 시간이나, 청결, 외박, 안전 등 생활원의 분위기를 흐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다. 경쟁률이 치열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생활원의 규칙만 잘 지키면 상점을 부여해 다음 학기 입사 때 가산점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혹 별점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별점을 만회할 수 있다.

생활원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아닐까. 단체생활을 통해 선후배, 동기와의 돈독한 관계를 쌓고 또 외국인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류도 체험할 수 있는 쉼터 그 이상의 공간.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즐겁게 지내다 건강히 돌아가길

차기울 생활원장

원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 생활원장을 맡고 있는 차기울입니다. 우리대학 생활원은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2017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숙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생활원은 가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원생 수를 비롯해 학기마다 모든 숫자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어 기숙사 비용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BTL을 통해 생활원을 잘 관리해 학교가 꿈꾸는 정주대학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생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낯선 곳에 온 거예요. 낯선 곳이라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원을 떠올렸을 때 가기 싫은 공간이 아닌,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공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공간인 만큼 즐겁게 생활하다 몸 건강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원생들에게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요?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갈등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털어놓듯이 말이죠.



산학협력의 First Mover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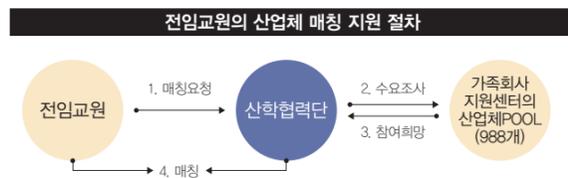
2017년도 지원프로그램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의 연구과제 지원과 지적재산권 관리 및 산업체와의 협력활동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임교원의 산학협력연구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임교원의 산업체 매칭 지원

가족회사지원센터(가족회사 988개)를 통해 산업체와 산학연구를 희망하는 전임교원에게 산업체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매칭을 통한 산업체의 기술경영 컨설팅부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까지, 전임교원의 산학협력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퍼스트 펭귄-점프업(First Penguin & Jump up) 지원

'최초의 펭귄 first Penguin'이라는 관용어가 있다. 펭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에 뛰어든 시기가 오면 천적이 있는지, 먹잇감이 있는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이때 용기를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 펭귄조직에 큰 영향을 주는 최초의 펭귄이 있다.

이와 같은 퍼스트 펭귄-점프업 프로그램은 산학연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한 전임교원이 용기를 가지고 산학연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산업체 매칭부터 산학연 과제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지원 등이다.

특허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지원

전임교원의 특허출원·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 변리사를 통해 발명자 Lab컨설팅 실시, 논문 특허성 검토 및 특허출원·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SMK(Small Marketing Kit) 제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교수마일리지 지원

교수 마일리지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실험실운영, 학술활동 등 연구자의 연구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지침」 제3장 제5조(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율)에 의거 간접비를 15%이상 징수한 연구과제
- 마일리지 적립
 - 연구과제에서 징수된 간접비의 20%(산통부과제는 30%)를 연구자의 마일리지 계정에 적립
 - 마일리지는 과제담당자가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 시 배분하여 적립
- ※ 공동연구의 경우 간접비 징수일 기준으로 해당과제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참여율에 따라 각 공동 연구자에게 적립
- 연구비중 대응자금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대응자금이 지원된 연구과제의 경우 교수 마일리지는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

사업(연구) 기획지원금 지원

외부연구사업 수주 및 국책센터유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전임교원에게 기획준비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과제
 -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공모(공고)하는 과제로서 2년 이상 수행하는 과제
 - 본교 산학협력단에 순수 입금되는 사업비 규모(총 사업비)가 4억 원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억 원)이상이며, 본교 전임교원이 4인 이상 또는 50% 이상 참여하는 과제
- 지원규모 : 사업(연구)비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총 사업비)

인문·사회 계열	이·공학 계열	지 원 액
1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사업(연구)비 : 인천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순수 연구비

연구소 운영 지원

우리대학 부설연구소와 기타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소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원목적
 - 연구소 단위의 연구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차기사업 발굴 지원
 - 대학의 연구 환경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대상
 -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인천대학교 전임교원이 소속된 연구소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지침」 제3장 제5조(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율)에 의거 간접비를 15%이상 징수한 연구과제
-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가 본인이 소속된 연구소를 지정하여(별지 제24호 서식) 연구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과제에서 징수된 간접비의 10%를 지원

※연구소 지원신청서는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각 연구과제에서 지원된 연구소 지원비는 연구소별로 통합하여 운영
- 연구비 중 대응자금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대응자금이 지원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소 지원비는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폐지되는 연구소는 폐지일까지의 사용분에 한해 인정하고 잔액은 소멸

학술연구용역 제반수수료(인지세, 보증보험증권) 지원

학술연구용역 수주 확대 유도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에 수반되는 제반수수료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 산학협력단 협약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투찰) 및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제
- 지원내용 : 학술연구용역 입찰참가 및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 지원

구 분	지 원 항 목
입찰 참가	입찰보증보험료
계약 및 과제수행	인지세, 지역개발공채,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이행보증보험료
과제 종료	하차이행보증보험료

「Blue Note 2017」 제작 및 배포

각 부처별 정부 R&D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Blue Note 2017'를 제작, 연구자의 교외연구과제에 참여를 지원한다.

-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의 정부 R&D사업 정보
 - 정부 R&D사업 현황, 예산규모, 신규과제 수, 사업추진일정 등
- 배포대상 : 전임교원, 대학 소속 연구자

외부연구비 예산 선 배정 지원

연구비 선금 입금 또는 분할 입금 등으로 인한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 지원을 위해 외부연구비 예산을 선 배정한다. (단, 산학협력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연구비 선금·분할입금·지연입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한 연구 과제 협약 책임자
- 신청방법 : 외부연구비 예산 선 배정 신청서 제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선두기업

셀트리온

언젠가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한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지원자들이 머뭇대는 사이 한 지원자가 손을 들었고 누구보다 먼저 삼행시를 지어보였다. 면접관은 삼행시를 기대한 게 아니라 누가 손을 들 것인지가 질문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가 말해주는 취업 Tip을 통해 ‘도전과 창조’를 꿈꾸는 셀트리온의 기업문화처럼 패기 있는 구직자가 되어보자.

edit 유서진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CMO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의 모체는 1991년 2월 세워진 (주)동양연구화학으로, 2001년 (주)동양연구화학에서 (주)알켄으로, 2008년 (주)셀트리온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단백질 의약품의 임상 및 양산을 위한 공정개발 서비스, 임상실험을 위한 의약품의 핵심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미래 전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도전해 2012년 세계 최초로 제품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과 창의성,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국내 제약업계 최초 글로벌 시장 진출의 쾌거를 일궈낸 셀트리온은 바이오산업계의 프론티어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임직원 분들의 전공 분포도는 어떠한가요? 비전공자여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허가, 임상, 통계를 포함한 제품개발 분야와 품질 및 생산 분야, 경영지원 분야까지 다양한 전공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인재상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자긍심과 행복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존경과 기쁨을”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중시하며 엄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재를 원합니다.



< 직원들의 연구모습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셀트리온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구직자를 선호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셀트리온에서도 동일한가요?

입사지원 시 토익 약 700점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따른 외국어 면접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 정도는 피력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셀트리온 혹은 비슷한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서 인류건강과 복지증진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셀트리온에서 계획 중인 채용 일정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공채, 수시, 상시채용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수시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해 서류전형 결과를 합격자에게 통보하고 면접을 시행합니다. 직무 및 전공면접과 임원 인성면접이 진행되며 직무에 따라서는 별도의 영어/제2외국어 면접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최종 합격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채용 및 공개채용 현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현황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월 31일)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 기부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00,000,000
양운근	교원	54,396,000
인천직업전문학교	기업	50,000,000
이재윤	교원	20,000,000
와카이슈지	동문	15,000,000
권명희	교원	12,000,000
조동성	교원	10,700,000
(사)대한산업 안전협회	기업	5,000,000
성기현	동문	5,000,000
이현구	기업	5,000,000
김주영	동문	4,000,000
박미진	교원	3,000,000
인천항만공사	기업	3,000,000
최재순	교원	3,000,000
(주)로보트필름	기업	2,50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주)백석개발	기업	1,000,000
(주)제이에스퍼처스	기업	1,000,000
박재윤	교원	1,000,000
성미영	교원	1,000,000
성창훈	교원	1,000,000
송다영	교원	1,000,000
이시자	교원	1,000,000
주식회사 테레비필름	기업	1,000,000
최원	교원	1,000,000
포스코건설	기업	1,000,000
황미옥	교원	1,000,000
(주)문화방송	기업	600,000
(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배양선	교원	600,000
이정연	개인	600,000
조중휘	교원	450,000
중국내대학 한국어 교수일동	단체	390,000
(주)H에너지	기업	300,000
(주)울인원시스템	기업	300,000
(주)진성엔텍	기업	300,000
(주)한마	기업	300,000
GV(주)	기업	3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곽문선	조교	300,000
구경현	교원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노영근	교원	300,000
노창근	동문	300,000
미림전력	기업	300,000
박종승	교원	300,000
서인천현대모터스 주식회사	기업	3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양미혜	교원	300,000
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윤용식	직원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병관	동문	30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성욱	동문	30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추성호	동문	300,000
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황헌배	동문	300,000
한상혁	직원	210,000
김기웅	교원	200,000
박옥자	동문	200,000
임만섭	동문	20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교홍	동문	150,000
김병훈	교원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환식	직원	150,000
김홍근	동문	150,000
박지선	교원	150,000
설경자	직원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김정홍	동문	150,000
유정훈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승열	직원	150,000
이종현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제희태	동문	150,000
배윤란	동문	120,000
김문수	개인	100,000
드림오피스(세연인포)	기업	100,000
한창원	동문	10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찬주	교원	90,000
박은경	교원	90,000
안춘순	교원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영도	교원	90,000
이창연	교원	90,000
김보슬	동문	60,000
김연자	직원	60,000
이준호	직원	60,000
전우홍	동문	6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최명중	직원	60,000
황용	동문	50,000
권오중	교원	40,000
커피수익금	기타	39,660
권정희	직원	30,233
김규원	교원	30,000
김기만	직원	30,000
김동규	직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종인	직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박영도	교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서상범	직원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안해신	교원	30,000
유병순	조교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두영	동문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진희	직원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최재혁	직원	30,000
한상길	조교	30,000
한종민	직원	30,000
허성희	직원	30,000
가온종합물류(주)	기업	20,000
문종욱	동문	20,000
박민범	교원	20,000
박일종	직원	20,000
임태은	교원	20,000
최민경	조교	20,000
한현미	개인	20,000
허광현	학부모	20,000
경원대학교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동문	10,000
문준영	교원	10,000
서진엔지니어링(주)	기업	10,000
승일자동차공업	기업	10,000
윤희량	동문	10,000

■ 우수리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한상혁	직원	28,960
윤창근	직원	28,860
이창연	조교	28,290
여운호	교원	27,650
강효현	직원	27,640
김연자	직원	27,420
빈상찬	직원	27,360
권혁준	교원	27,220
안승범	교원	27,040
서종국	교원	26,430
김동호	직원	26,340
조길수	직원	26,330
심인애	직원	26,290
이건상	교원	26,180
김선경	직원	26,050
박지선	교원	25,560
박시우	직원	25,410
박용호	교원	25,390
최병길	교원	25,150
이지은	교원	25,090
이윤정	조교	24,930
최일용	직원	24,930
윤세원	교원	24,420
안익태	직원	24,250
이나영	직원	24,040
최병식	직원	24,000
김순홍	교원	23,920
정경란	직원	23,720
이선영	조교	23,640
김내현	교원	23,460
김환용	교원	23,370
박상임	직원	23,350
설경자	직원	23,290
박재일	직원	23,150
박문주	교원	22,890
곽문선	조교	22,700
민금홍	직원	22,620
이민철	교원	22,570
이희관	교원	22,460
허성희	직원	22,460
안효진	교원	21,950
이한영	교원	21,940
조현우	교원	21,910
김용민	교원	21,790
이영석	교원	21,780
박주문	교원	21,720
손정숙	직원	21,710
김산정	직원	21,360
최재웅	직원	21,360
김수진	교원	21,350
장진주	직원	21,230
전찬기	교원	21,180
임경환	교원	21,16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조명순	직원	21,060
오혜영	조교	21,010
김재광	교원	20,910
박지훈	교원	20,880
김은선	직원	20,860
채진석	교원	20,850
우재대	직원	20,780
박주연	직원	20,720
김준석	교원	20,680
임지현	직원	20,590
이효은	조교	20,540
김경아	조교	20,470
황영삼	교원	20,440
찬성철	교원	20,430
김평원	교원	20,330
양은근	교원	20,280
안정규	교원	20,230
최운정	직원	20,220
황재휘	직원	20,120
유준근	교원	20,090
우오섭	교원	20,030
이병관	조교	20,010
김성희	교원	20,000
김동배	교원	19,950
구선희	직원	19,840
김형기	직원	19,580
장소영	직원	19,580
문은호	직원	19,560
민문기	직원	19,500
윤용식	교원	19,500
신미옥	직원	19,420
황선용	직원	19,310
정영식	교원	19,230
송여숙	교원	19,200
김형근	직원	19,140
이진원	교원	18,840
김기준	교원	18,830
김기만	직원	18,790
허성희	직원	18,730
김순옥	직원	18,610
나인수	교원	18,590
장희경	직원	18,590
전동근	교원	18,400
김영철	직원	18,380
조진순	직원	18,180
채소희	교원	18,100
이원길	교원	18,050
박승진	교원	18,040
박형의	직원	17,990
고혜영	교원	17,860
김진한	교원	17,860
김광열	직원	17,72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공용득	직원	17,680
이동후	교원	17,610
노정호	직원	17,560
유재란	직원	17,500
홍영진	직원	17,340
이찬식	교원	17,310
황병희	교원	17,250
사상범	직원	17,200
김재근	교원	16,950
주현태	교원	16,950
김응철	교원	16,940
민홍기	교원	16,790
김연제	직원	16,770
김정업	조교	16,730
김평원	교원	16,710
최성을	교원	16,650
최재순	교원	16,650
심형보	교원	16,520
김동욱	교원	16,450
박종욱	교원	16,330
박정순	직원	16,300
황미숙	조교	16,270
한종민	직원	16,220
황미옥	교원	16,030
최은희	직원	15,780
이병하	교원	15,760
우금순	직원	15,730
김광수	직원	15,630
안해균	직원	15,630
배양섭	교원	15,560
안호선	교원	15,560
관정호	교원	15,440
강현욱	교원	15,380
이진희	직원	15,270
김은영	교원	15,200
송원용	교원	15,160
김선호	교원	15,110
김관식	직원	15,080
김혜미	교원	15,020
조사옥	교원	14,970
최계운	교원	14,950
황태진	직원	14,810
김영희	교원	14,780
이석기	직원	14,730
이승철	직원	14,730
김기웅	교원	14,700
박정훈	교원	14,530
이도균	교원	14,500
최재혁	직원	14,210
김태완	교원	14,180
고은희	직원	14,060
이연희	직원	13,94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최형우	직원	13,920
김현우	직원	13,840
박성완	교원	13,780
신현주	조교	13,750
안영호	교원	13,680
정선영	교원	13,630
김종인	직원	13,620
송월봉	교원	13,570
전용재	직원	13,550
박찬진	교원	13,470
윤종구	직원	13,440
오은하	교원	13,280
전병준	직원	13,150
이윤	교원	13,120
박인선	교원	13,040
백종숙	직원	13,030
정경찬	직원	12,940
오지은	조교	12,880
이영애	교원	12,850
강승택	교원	12,770
이종우	직원	12,730
이운형	교원	12,690
김익수	교원	12,590
최민경	조교	12,540
이진식	직원	12,300
윤종화	직원	12,240
김진호	교원	12,060
한승현	직원	12,020
김우일	교원	11,870
강상미	직원	11,700
김종호	직원	11,660
전석희	교원	11,570
이상동	직원	11,330
박정준	교원	11,280
김화순	교원	11,100
변윤식	교원	11,060
전재철	직원	10,950
정영민	직원	10,940
황상순	교원	10,930
김강우	교원	10,740
오원선	교원	10,740
은주영	직원	10,610
장서은	직원	10,600
홍현경	조교	10,580
고덕봉	직원	10,560
송원호	교원	10,560
김시연	교원	10,430
최성욱	교원	10,400
김동규	직원	10,380
김학만	교원	10,290
방명인	직원	10,180
조인구	교원	10,17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정민	직원	10,140
이시자	교원	10,080
권정희	직원	9,970
문옥미	직원	9,900
윤태웅	교원	9,810
신원태	교원	9,720
정해준	교원	9,710
여인철	교원	9,400
박종돈	교원	9,330
김창우	직원	9,040